

굴뚝 조화가 사찰 조형미 돋보이게 해

굴뚝(하)

봉정사 영산암은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촬영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몇몇 건축가와 조각가들이 영산암의 공간성이나 경관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글이나 영상을 접해서인지 건축이나 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산암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조경가인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영산암은 건물과 마당이 연주하는 절묘한 하모니, 휴먼스케일을 유지하고 있는 안마당 크기,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소나무와 배롱나무의 힘찬 생명력, 누각인 우화루와 요사채인 송암당의 누마루너머로 연결되는 시각의 흐름,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의 묵묵함도 인상적이지만, 마당 한구석에서 자기를 낮추고 세월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투박한 형태의 굴뚝이 가장 마음에 든다. 바로 이 굴뚝으로 인해서 영산암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당을 가진 절점으로 평가된다.

키다리굴뚝은 난쟁이굴뚝과 마찬가지로 외편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굴뚝의 특성상 진흙을 사용해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외편을 몇 단 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쟁이굴뚝과 마찬가지로 외편의 놓기 비율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감이 달라진다. 외편 말고도 굴뚝을 만드는 다른 재료로 벽돌이나 납작한 돌을 벽돌처럼 다듬은 모전이 있으나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굴뚝은 흔치 않다. 키다리굴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주 마곡사의 굴뚝, 여주 신륵사의 굴뚝, 김천 직지사의 굴뚝, 대구 파계사의 굴뚝, 지리산 국사암의 굴뚝, 지리산 칠불암의 굴뚝, 서울 봉은사의 굴뚝 등 너무나 많다.

마곡사 굴뚝은 하부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만든 특이한 형태의 굴뚝이다. 이 굴뚝은 하부에 자연석을 서너단 놓아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위로 올라가면서 외편을 커커이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었다. 형태도 특이하지만 굴뚝 중간에 두 차례나 반복해 수키와 등이 보이도록 박아 넣어 독특한 양식의 문양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마곡사 굴뚝은 생각 없이 맛있게 외편과 진흙을 섞어서 쌓아 올린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신륵사 적목당 벽면에 붙여서 만든 굴뚝 역시 특이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굴뚝의 형태는 도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치 벌집이 벽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준다. 굴뚝의 상세를 보면, 진흙으로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평가와를 잘라서 아래서부터 붙여 올렸다. 이 굴뚝은 지붕하부에 설치해 굴뚝으로서의 기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성을 살

보는이 즐겁게 하는 다양한 굴뚝 지역성 살린 형태미 만들어 부정적 이미지 강했던 소각로 경관 고려해 불교 상징성 강화

린 의미 있는 형태미를 만들어내고 있어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지리산 국사암 법당 후면부에 설치한 굴뚝은 암기와 수키와를 지붕 잇듯이 이어 마치 탐의 옥개석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이 굴뚝은 마치 5층탑과 같은 형태미를 가진다. 더구나 굴뚝몸체에 외편을 층마다 서로 엇갈리게 박아 넣어 다양한 무늬를 만들었는데, 발상도 재미있고 정성 또한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평가된다.

서울 봉은사 마당에 설치한 굴뚝은 전벽돌을 재료로 사용하고 석회반죽으로 줄눈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의 굴뚝에

서는 외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 경우는 가까이 있는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서 전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굴뚝 몸체 상부에는 자경전 십장생굴뚝과 같은 기법으로 화면을 만들어 색깔 있는 조형전을 구워 연꽃·연꽃·새를 문양으로 만들어 넣었는데, 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구성을 보여준다. 굴뚝 상부에는 연가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 완성도를 높였다. 이것 역시 일반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양평 용문사에는 전통차집을 지으면서 새로 굴뚝을 만들어 세웠다. 이 굴뚝에서는 우리네 절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굴뚝과는 또 다른 형태미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최근 들어 사찰을 경영하는 스님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예전에는 소홀하게 다녔던 사찰내의 여러 가지 요소에 그 사찰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경관을 만드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굴뚝은 특히 사찰에서 눈이 많이 가는 수직적 경관요소이므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만들 경우 아름다운 사찰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굴뚝은 아니지만 굴뚝과 같은 디자인 감각을 볼 수 있는 것이 명부전이나地藏전 가까이에 조성해놓은 소각로이다. 소각로는 재를 지내고 나서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소지했던 물건을 태우는 곳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조형물이다. 예전에는 절 마당에서 물건을 소각해 화재위험이 많았고 보기에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많은 절에서 소각로를 만들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사찰에 어울리도록 불교적 상징성을 가미해 만든 소각로는 사찰에서 중요한 경관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찰에 만들어놓은 소각로의 대표적 사례로는 양평 용문사·남양주 봉영사·여주 신륵사·부천 석왕사·서울 화계사 소각로 등이 있다.

소각로는 굴뚝과는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키를 높여 노출되는 시각량을 늘리지 않고 낮게 만들어 노출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소각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봉영사 소각로와 같이 절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높이도 높게 하여 오가는 이들에게 잘 보이도록 만든 것도 있다. 이를 보면 소각로도 얼마든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조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구 파계사 키다리굴뚝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것이 특징인 공주 마곡사 굴뚝



벌집이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여주 신륵사 굴뚝



양평 용문사 소각로



부천 석왕사 소각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각로를 부정적인 경관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조형요소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소각로는 조형성도 우수해야 하겠지만 그것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도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물건을 태우거나 소각로가 있어도 그것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여 조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사찰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소각로와 같은 작은 조형물도 세밀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평 용문사 소각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소각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형물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사찰에서도 소각로를 볼 수 있는데, 중국 소관의 대각선사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는 최근 우리나라에 조성하는 소각로와 디자인적으로 많이 닮

아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것이므로 중국사찰의 소각로가 우리나라 사찰의 소각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찰의 소각로가 중국사찰의 소각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고급스러운 사찰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제천선신 오희,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양부도 왕생정복,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 강건 육근청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벳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범륜, 법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범구**입니다.

사찰 불법법 성향원할 때 · 불사 신도변장을 발원할 때
사업, 정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은,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하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만하고 뒤송송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세로 33cm×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풍다원, 가격 | 180,000원(사찰스님 20%할인)

입금 계좌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음마니반에 흉 열꽃 운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운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범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운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가수연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운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할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운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풍다원

입금 계좌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